

# 뚝뚝 떨어지는 쌀값...10년 전 가격 돌아가나

지난해 10월 22만원 최고점 이후  
현 거래가 18만원 평년가격 아래  
햅쌀 수확 코앞...추가격리 시급

산지 쌀값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농가  
시름이 깊어지고 있다.  
농정당국은 3차 시장격리를 고민하고 있지

만, 재고쌀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햅쌀 출하도  
코앞으로 다가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  
고 있다.

7일 전남도와 전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 
하락세에도 그동안 평년 가격을 웃돌던 산지 쌀  
값이 최근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.

최근 5년간 80kg당 산지 쌀값 평년 가격은 18  
만8,000원이었으나 이날 현재 거래가격은 18만  
원이다.

지난해 10월 22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산지

쌀값은 이후 지속해서 떨어졌으나 2차례 시장격  
리 등에 힘입어 그동안 평년 가격 이상을 유지했  
었다.

하지만 재고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 
다시 이어졌고 결국 평년가격 이하로 낮아졌다.

전국 쌀 재고량은 지난달 말 현재 95만9,000t

으로 이중 전남 쌀 재고량은 14만7,000t이다.

전남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9만2,000t이나

늘었고 예년보다 56%나 증가했다.

의 쌀을 격리했지만 '반짝효과'에 그쳤고 하락  
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.

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다음 달께 햅쌀이  
나올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해 자  
칫 18만원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.

전남도는 18만원을 산지 쌀값 하락의 마지노  
선으로 보고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10만  
이상의 3차 시장격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 
있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1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

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게 돼 더는 쌀값이 떨어  
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"며 "정부  
에서도 추가격리를 고민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추가격리에도 쌀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쌀  
값 하락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.

전남농협 관계자는 "쌀값 하락은 식량안보의  
최전선인 쌀 산업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"며 "정  
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비자들도 쌀소비  
에 함께 해주셔야 농가도 살고 식량안보도 지킬  
수 있다"고 말했다. /최근산 기사

## '10일 빠른 고수온' 전남도 피해 예방 총력

### 상황실·현장대응반 운영

전남도가 예년보다 빠른 고수온 주  
의보 발령에 대응해 피해 예방에 총  
력을 기울이고 있다.

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  
원은 전남 오후 2시를 기해 함평만, 도  
암만, 득량만, 여자만, 가막만 등 5개  
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. 해  
당 해역은 지난해 대비 열흘 빠르게  
수온이 23.6~29.7도에 도달했다.

특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1,405  
양식어가가 어류 7,000만 마리, 전복  
2,000만 마리, 고막 등 어패류 3만  
3,285톤을 키우고 있다.

전남도는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  
으로 하는 고수온 대책 종합상황실을  
비롯해 현장대응반을 구성·운영하면  
서 피해 우심해역 어가를 방문, 대응

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요령을  
지도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 
있다.

또 10개 시군에 15억원의 들여 양  
식장에 액화산소, 산소발생기, 차광  
막 등을 지원하는 등 총 7종 1만938  
대의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해 신속  
하게 가동하도록 했다. 여수, 고흥,  
완도 등 우심해역에는 실시간 수온  
측정기를 83곳에 설치, 전남바다알리  
미앱과 문자메시지(SMS)를 통해 어  
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  
는 등 사전 대응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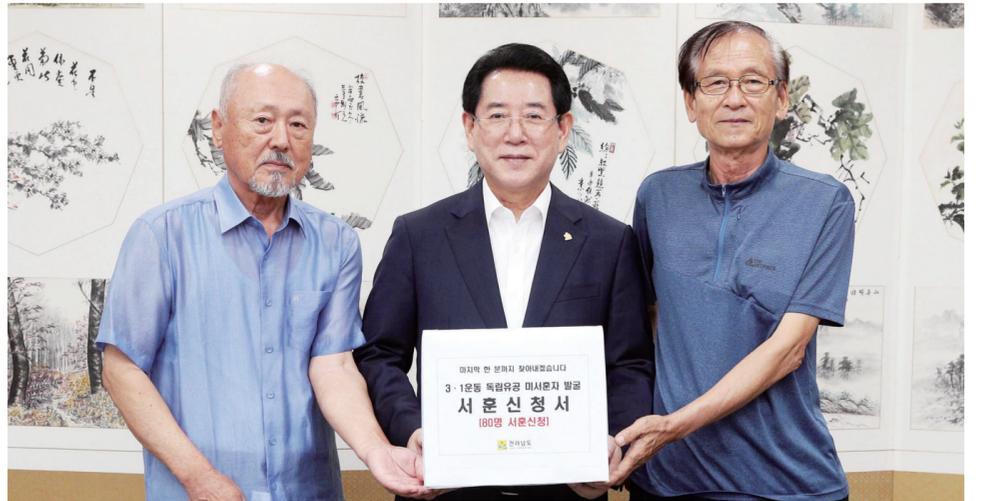
전남도는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지  
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복, 우  
럭, 넙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 
양식하는 어가에서는 사육량 조절,  
먹이공급 중단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  
고 가두리 그물을 청소하는 등 사전

조치가 필요하다. 특히 한계수온이  
29도인 넙치와 우럭, 30도인 전복,  
31도인 감성돔 등을 양식하는 지역을  
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전남도는 올해부터 어업인 보험료  
자부담율을 20%에서 10%로 낮추고  
보험료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 
1,0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추가경  
정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.

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 
"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이공  
급 중단, 조기출하 등 자기어장 지키  
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"고  
말했다.

한편, 전남에선 지난해 7월 15일부  
터 8월 26일까지 지속된 고수온의 영  
향으로 11개 시군, 3,759어가에서  
175억원의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  
했다. /오선우 기사



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 접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3·1 독립운동 미서훈자 유족이 7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국가보훈처에 접수할 3·1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/전남도 제공

## 전남보건연, 원숭이두창 24시간 신속 검사

### 질병관리청서 진단법 이관

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"국내  
첫 확진자 발생으로 '관심'에서 '주의'  
로 격상된 원숭이두창의 진단검사를 질  
병관리청에서 이관받아 직접 실시한  
다"고 밝혔다.

앞서 연구원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진  
단검사 교육을 수료하고, 검사법 숙련  
도 평가에서 합격함으로써 자체 검사  
능력을 확보했다.

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 
해외 입국자 및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 
유전자 검출검사법으로 신속하게 처리

해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에 대비할 방침  
이다.

원숭이두창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 
서 풍토병화 됐으나 2022년 5월 스페  
인,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이례적으  
로 발생해 4일 현재 국내 확진자 1명을  
비롯 전 세계적으로 총 59개 나라에서  
6,157명이 확진됐다. 이에 질병관리청  
은 6월부터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  
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.

검역되면 1~2주간(평균 7~14일)의  
잠복기를 지나 38도 이상의 급성 발열,  
두통, 근육통 및 피로감 등으로 시작해  
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증상이 나타난

다. 현재 상용화된 백신 및 치료제는 없  
으며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으  
로 치료하고 있다.

임원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  
병조사과장은 "세계보건기구(WHO)  
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이 3~  
6%이고,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 
질환이 아니므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 
필요는 없다"며 "다만 감염비말에 의한  
사람 간 직접 전파나 접촉을 통한 전파  
가 가능하니,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 
준수를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와 밀접  
접촉 시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할 것"을  
 당부했다. /오선우 기사

## 정기 브리핑

### 신정훈 "SPC그룹-나주배 농가 상생 환영"

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(나주·화  
순)은 7일 SPC그룹 산하 '던킨도너  
츠'와 '베스킨라빈스'의 나주배 활용  
상생제품 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발  
했다.

신 의원은 전남 강남역 던킨라이브  
매장에서 열린 'ESG 농가 상생 나주배  
활용 제품 출시 행사'에 참석해 "나주  
배 블라스트·콜라타는 행복 상생의 상  
징"이라며 "기업과 농가, 도시와 농촌,  
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함께 성장 시  
켜주는 효과상품이 되길 바란다"고 강  
조했다.

이날 행사에는 신 의원을 비롯, 도세  
호 BRK 대표이사과 나주시청 관계자  
및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다.

나주배 활용 상생제품은 SPC 계열  
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가 지역농  
가 상생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, 나주  
배 원예농협에서 배 원물을 공급하고  
충북원예농협에서 푸레형태로 가공  
해 15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.



SPC 측은 올해 판매량에 따라  
수량이 추가될 수 있으며 향후  
매년 여름 기획  
상품으로 출시  
될 수 있다고 밝  
혔다.

신 의원은 "앞으로 나주배를 활용한  
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브랜드 가치  
가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  
력을 포함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 하  
겠다"고 밝혔다.

### 김희재 "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비대면 신문"

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(여수 을)  
은 7일 "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  
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 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
(이하 성폭력처벌법)을 대표발의 했  
다"고 밝혔다.
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 
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재판  
소 위원결정에 대한 보완입법이다.

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  
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, 피해  
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 
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, 반복되거나 불  
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 
있는 신문을 제한했다.

또 증인 신문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 
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법원이 2차 피  
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



한할 수 있도록  
했다.  
김 의원은  
"미성년자를대  
상으론 성폭  
력 피해가 심각  
하고, 재판과정  
에서 2차 피해  
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"며 "미성년  
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  
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  
/서울=강병운 기사

www.hdamis.com

##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

###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!

공동주택관리

전기안전관리

소방시설관리

경비용역

청소·미화

소독·방역

현대아미스그룹

현대아미스(주)    아미스(주)    (주)한솔티엘에스

한솔엘리베이터(주)    (주)아미스능력개발원    (주)도곡전기엔지니어링

(주)아미스개발    메인기획협동조합    복지TV호남방송

회장 김우열

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(마륵동 173-8번지)  
T.062)225-1050 FAX.062)463-7300